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보도 시점 2025. 12. 14.(일) 11:00 / 12. 15.(월) 조간 배포 2025. 12. 12.(금) 16:00

노령 반려견 장 건강 개선에 흑염소 고기 도움

- 4주 급여 평가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 확인
-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소재 연구 기초 자료 제시
- 연구 성과 특허 등록 완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노령견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 흑염소 고기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흑염소>
제공: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흑염소 고기는 저지방·고단백 식재료로 칼슘, 철분, 비타민 등이 풍부해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흑염소 고기가 노령견의 장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15세 노령견 12마리에게 흑염소 생고기를 고압으로 압출한 시험 사료를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일일 에너지 요구량 기준에 맞춰 4주간 급여한 뒤 장내 미생물 변화를 비교했다.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AAFCO): 개와 고양이 사료의 필수 영양소 기준 등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기관

그 결과, 염증 반응과 연관성이 보고된 장내 미생물군(펩토스트렙토코쿠스과)은 38.4% 감소하고, 장 점막 보호 및 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라크노스파라과)은 82.5%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는 노령견의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에 흑염소 고기가 도움이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초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흑염소 고기 함유 사료>

<흑염소 고기 예시>

아울러 향후 기술이전을 통해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10-2839139) 등록은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이휘철 과장은 “반려동물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성 사료 원료를 발굴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고품질 반려견 사료 생산 기술을 개발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흑염소 고기의 노령견 장 건강 증진 연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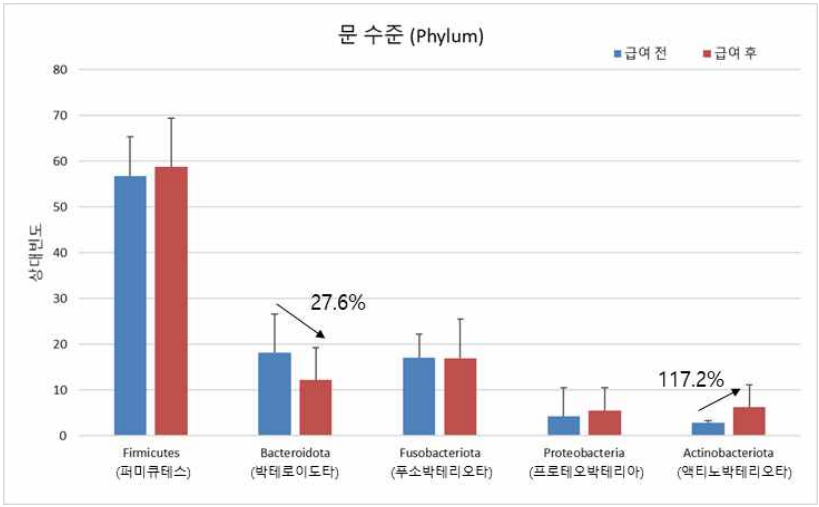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휘철 (063-238-7300)
		담당자	연구사	천주란 (063-238-7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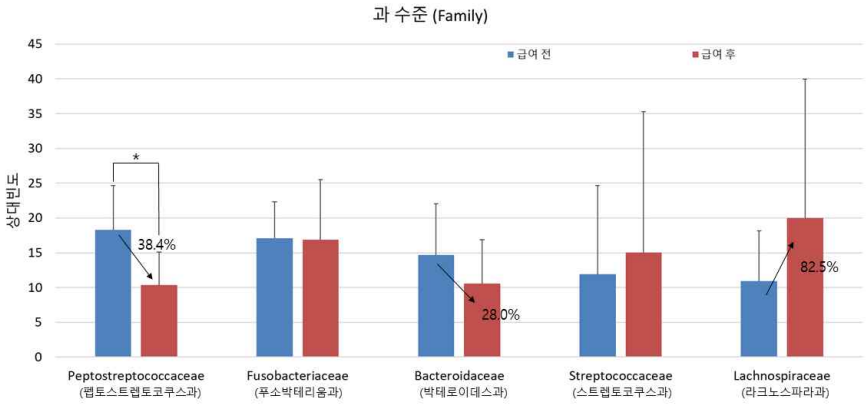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흑염소 고기의 노령견 장 건강 증진 연구 결과**

□ 장내 미생물 변화





<흑염소 고기 함유 사료의 급여 전과 후 주요 장내 미생물 변화>